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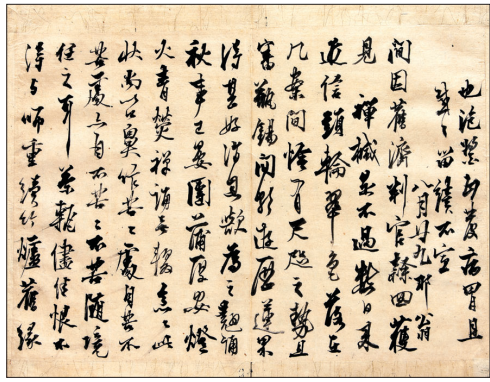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유불 교유사를 빛낼 아름다운 우정

연재를 마치며
초의선사를 연구하면서 초의와 관련된 추사의 자료를 하나 둘 찾을 때마다 전율을 느낀다. 이는 초의와 추사의 인연의 독특함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추사의 친필 편지는 붓 끝에 서린 오묘한 기운 탓인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의 글씨가 마치 흑유이 솟구쳐 하늘을 달리다가 문득 종이 위에 스며든 고요처럼 침묵의 잔잔함을 방점으로 찍은 듯한 묘미가 있다. 긴 여운 뒤에 남는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은 순간 빠져드는 마력을 지닌 것이 추사체의 힘이기도 하다. 이런 감동은 활자체의 자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큰 울림이다.

추사의 문장은 간결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더욱 통쾌하고, 결연하며, 해학적이고, 맛깔이 지다. 호방함 속에 배어있는 문기(文氣), 선미를 담은 듯, 걸림 없는 포용력, 이런 안목은 이미 현대인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시대를 관통할 여취의 단절, 다시 말해 소통의 도구로서의 문장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급으로 이어온 고급문화의 이상을 소통할 통로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더욱 낫설어 하고, 진부하게 느끼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게 된 원유이다. 하지만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이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상 세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다리이다. 바로 추사의 편지는 고상한 이상의 차원을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징검다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편지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누는 미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는 사람 간에 오고



추사 친필 편지

간 솔직한 언어이기에 꾸밈이 없다. 진솔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살피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그의 지성과 인간에 대한 회화과 연민, 우정을 나눈 벗에게 보내는 순박한 온기를 느끼게 한다. 신분을 초월한 초의와 추사의 만남은 조선 후기 유불의 교유사를 빛낼 아름다운 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성의 있는 교유와 속내는 바로 추사의 편지 속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리고 추사는 학자다운 인품도 함께 담겨 있다. 그의 천지를 가득 채운 듯한 호연한 기세와 학문의 탐마수준은 청대의 대학자였던 오방강의 마음을 열게 한 이유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와 같은 대인을 포용하기에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었다. 유배지에서 인고(忍苦)의 시간을 견디며, 불교를 탐마하고, 차를 즐기는 동안 그의 정신세계는 더욱 견고하고 충실해졌다. 추사의 예술세계가 확고한 자리를 얻음은 이런 인고로 견딘 결과이다. 한편 그의 허허로운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초의였다. 초의는 추사의 지기요, 동반자였다. 동갑으로

태어나 동년의 시기를 살았던 이들은 태어난 부모의 인연도 다르고, 체세의 길도 달랐다. 그러나 1815년 학림암에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던 날, 이들은 숙연의 실마리를 서로 알았지도 모른다. 이들이 나누는 인간의 아름다운 우정, 사람냄새가 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추사의 편지를 연재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제주도 유배 길에 일지암에서 묵었던 때의 정경이다. 이들은 산차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세상 돌아가는 형세와 백성을 근심하였다. 서로의 우정을 '불망상사상애지도(不忘相思相愛之道)'라 말했던 초의는 정말 일생동안 '서로 사모하고 아끼는 도리를 잊지 않는 우정'을 나누었다. 후일 추사가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한 그의 인장은 초의의 이 말에서 나온 듯하다.

이 연재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는 초학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연재하면서 추사와 초의의 우정을 한없이 부러워했고, 동경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을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이 연재를 마치면서 지면을 할애해준 현대 불교 관계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두서없이 나열한 뻘뻘한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도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내 춤의 근원은 불교” ... 40여년 구도 역정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前한양대 교수)

“무용이라는 예술도 불교의 수행과 같아요. 개인으로서의 몸은 하나의 악기 즉 도구로 삼아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하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연습을 해야 해요. 또 혼자서는 무대가 아니다 보니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술 분야보다 인간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이 무용가의 삶이예요.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아타의 삶이 무용의 세계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정년 따로 없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무용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실한 불자인 그에게 무용은 하나의 수행과도 같은 구도의 과정인 것이다.

한양대 교수로 40여년 재직하던 그는 지난 2월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2월 22일~23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년퇴임 기념공연을 가진 것이다. 40여년 현대무용의 기틀을 다져온 그에게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공연에 세상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념 공연에는 두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1999년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를 한국의 남사당패 이야기와 접목해 안무한 '천형, 그 생명의 수레'와 이철준 작가의 소설 <눈길>에서 영감을 얻어 안무한 신작 '살꽃 바람꽃 V, 눈길'도 선보였다. 특히, '천형, 그 생명의 수레'는 '올드 드림팀' (김복희 손관중 김남식 등)과 '뉴드림팀' (김성용 박종현 박은영 등)으로 각각 나뉘어 공연돼 눈길을 끌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자리가 없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만큼 관심을 받았죠. 지난 1999년에 초연했던 공연을 다시 올리자 하니 그때 무대에 섰던 제자들이 다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어요. 당시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 올드 드림팀이예요. 벌써 15년 전이니 다들 예전 몸이 아니잖아요. 무대를 위해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죠. 두 팀 모두 좋은 공연을 펼쳤지만 대체로 올드 드림팀 공연이 더 좋았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생겨서 그렇지 않아요.”

공연은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예술에는 정년이 따로 없다'는 말은 큰 감명을 주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는데 후배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정년퇴임이죠. 사실 예술가들한테는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학이라는 제도에서 정년이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나이 들었다는 허무감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제자들이 훌쩍 커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허무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커요.”

나의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불자 무용가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년 퇴임 소감이 아닐 수 없다. 어린시절 어머니 서원만행 보살은 방학이면 어린 그를 데리고 대구 동화사 말사인 열불암, 양진암 등으로 향했다. 산길이 험해 차가 들어갈 수 없었던 시절, 지게꾼을 불러 쌀, 초, 향 등의 보시물을 지게에 싣고 산길을 올라야 할만큼 절에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방학 때면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보냈죠. 어머니께서 1주일 기도를 하시고 집안 일 때문에 내려가시면 저는 남은 방학을 절에서 보냈어요. 한번은,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빵통에 든 연유가 머리카락에 쏟아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절집에 목욕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라 따뜻한 물을 조금 구해서 머리 감느라 애를 먹었죠. 어린시절의 방학은 그렇게 절에서 목탁 소리 듣고 향내 맡으며 절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서원만행 보살은 새벽 4시엔 일어나 관음기도를 하는 신실한 불자였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의 어머니가 기억속에 선연하게 남아있다. “매일 아침 눈뜨면 듣는 소리가 어머니의 염불소리였어요. 늘 저를 깨어있게 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염불소리였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셨어

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시신 어머니이자 관세음보살님이시죠.”

이런 신실한 어머니 덕분에 어린시절부터 큰스님을 많이 친견할 수 있었다고. “제 나이에 저만큼 큰스님을 많이 친견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구산 스님, 효봉 스님,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등을 두루 친견했죠. 특히 효봉 스님과는 인연이 깊었어요. 동화사 금당선원에 계시실 때 인연이 되어 꾸준히 찾아뵙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죠.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밀양 표충사에 계시는 효봉 스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는데 두세달 후에 임적을 하셨죠. 성철 스님을 만나 뵈고는 하루 3천 배기도를 1주일간 한 적도 있었죠.”

이런 가풍은 현재 딸과 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제가 108배를 하면 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염주를 질질 끌고 와 옆에서 절을 따라했어요. 지금도 향 피우는 건 꼭 자기 손으로 해야 할 만큼 초등학교 손녀는 불교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일 때문에 고박고 박 낱자를 챙겨 절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만큼 강성(?) 불자는 없을 거라고 딸들과 웃으며 얘기해요. 그만큼 몸속에 불교문화가 강하게 배어 있었어요. 불교는 스스로 지혜의 힘을 길러 위기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진리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힘을 늘 믿습니다.”

1971년 선방 스님의 삶을

춤으로 표현한 '법열의 시'로 첫 창작 작품 무대에 올려 이후 불교와 전통을 가미한 70여 창작 작품 무대 올리며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 마련

신실한 불자인 어머니 따라 효봉 스님 등 큰스님 친견 불교 가르침 삶의 지침 삼아 “예술가에게 정년 따로 없어요 10년 뒤에도 무대 서는 게 꿈”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

대구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취미로 무용을 시작했던 그는 초등학교 때는 동네 무용교습소를 다녔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정식으로 춤을 배워 이화여대를 졸업하자마자 스물셋의 나이에 스승 육완순의 만류를 뿌리치고 개인무용단을 만들었다. 1971년 제1회 현대무용발표회에서 무대에 올린 창단 작품이 바로 스님들의 참선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법열의 시(詩)'다. 어린시절부터 보아왔던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창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님들의 선방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냈는데 돌이켜 보니 20대에 그렇게 심오한 주제를 춤으로 풀어냈다는 것이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정서와 불교적 정서를 반영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작품이 십우도를 모티브로 한 '아홉 개의 의문, 그리고'와 <화엄경>의 선재동자 이야기를 무용으로 풀어낸 '흙으로 빛은 사리의 나뭇잎'다. “흙으로 빛은 사리의 나뭇잎은 인간이 겪는 세상을 무용으로 풀어냈죠. 큰 틀에서 보면 불교를 의미하지만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불교적 정서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무용에 담아내면서 현대무용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낸 그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무용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86년 한국현대춤협회를



지난 2월 22일~23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년퇴임 기념공연을 한 김복희 이사장의 공연 장면.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숭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후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급이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청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